

특별기획

이번 <특별기획>에서는 2008년 10월 8일 '신 한일관계 파트너십 공동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움의 발표내용을 수록하였다.

먼저 당시 '공동선언'을 주도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수상의 영예인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저출산대책장관의 강연원고 2편(전문)을 비롯하여 주제발표 6편(개요서)을 각각 한국어와 일본어로 게재하였다. 본 <특별기획>에서는 '공동선언'의 의의와 성과를 재조명한 양국의 학계, 언론계, 정관계 인사들의 발표내용을 게재함으로써 향후 한일관계에 새로운 지향점과 비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별기획 집필자 프로필]

김대중(金大中)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목포상업고등학교, 러시아어 외교아카데미 정치학 박사, 고려대 명예경제학박사, 캠브리지대 명예법학박사, 샌프란시스코대 명예인문학 박사 외 다수.

1948년 목포일보 사장, 1961년 제5대 민주당 민의원을 거쳐, 제6, 7, 8, 13, 14대 국회의원, 1987년 평화민주당 총재 등을 역임. 현재 (사)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2000년 인권향상과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평화상 수상. 2001년 세계정치지도자상, 2003년 만해상, 2003년 춘사영화제 공로상, 2007년 밴 플리트상(코리아 소사이어티 수여), 2007년 자유상(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수여) 저서: <김대중 옥중서신>(1984), <대중경제론>(1985),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1995),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1998), <21세기와 한민족>(2004) 외 다수.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일본 중의원 의원·저출산대책장관

전 오부치 게이조 수상(小淵敬三元首相) 영애

세이쵸대학 경제학부 졸업. 2005년 와세다대학 공공경영연구과(公共経営研究科) 전문직학위 취득.

1996년 (주)도쿄방송 TBS입사. 2000년 6월 중의원 선거에서 첫 당선 후 현재까지 3회 당선. 2006년 문부과학대신정무관을 거쳐, 2008년 9월 최연소로 내각부특명담당대신(저출산대책/남녀공동참가담당)에 취임함. 현재 일본 스리랑카우호(友好)국회의원연맹 사무국장 및 공문서관(公文書館)추진의원연맹 간담회 사무국장, 중고자동차의원연맹 사무국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 일본 아사히신문사 주필

도쿄대학 교양학부 졸업. 1992년 게이오대학 법학박사 학위취득.

1968년 아사히신문에 입사, 베이징 지국원, 워싱턴 지국원, 미국경제연구소(IEE)객원연구원, 아사히신문 경제부편집위원, 미국총국장, 특별편집위원 등을 거쳐 2007년부터 아사히신문 주필을 맡고 있다. 도쿄대학 객원교수(2003-2004), 고려대 특별초청교수(2004-2005)를 지낸 바 있으며 일본 저널리스트로서 외교교섭 및 동맹 등의 현안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고찰한 저작을 많이 남기고 있다.

저서: 『서미트의 사상(サミットの思想)』(1980), “The Peninsula Question/A Chronicle of Second Korean Nuclear Crisis”(2007), 『냉전후—잃어버린시대(冷戦後—失われた時代)』(2008) 외 다수.

강상중 (姜尚中) 일본 도쿄대학 정보환경·학제정보학부 교수

1979년에서 1981년 독일 에어랑겐대학 유학. 국제기독교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도쿄대학 교수로 재직 중. 전공은 정치학, 정치사상사. 아시아지역주의론 및 일본제국주의를 대상으로 한 포스트 코로니얼 이론(ポストコロニアル理論)등을 주요 연구분야로 하고 있다. 현재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에서 폭넓게 활약 중.

저서: 『내셔널리즘(ナショナリズム)』(2001), 『한일관계의 극복—왜 국교정상화교섭이 필요한가(日朝關係の克服—なぜ国交正常化交渉が必要なのか)』(2003), 『재일(在日)』(2004), 『고민하는 힘(悩む力)』(2008) 외 다수.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일본중의원의원

1959년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1966년 하버드대학 석사과정 수료.

1964년 외무성 입성 후, 타이베이 대사관, 워싱턴 대사관, 외무성 아시아국중국과차석사무관을 역임. 1972년 총선거에서 당선, 정계에 입문한 후, 2005년까지 중의원의원 선거에서 12번 당선되었다. 중의원의원 운영위원회 이사, 농림수산위원회 이사, 자유민주당 총사무국장, 내각관방장관(官房長官), 자유민주당 간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 『새로운 일본의 모습(新しき日本のかたち)』(2005), 『강한 자유주의자(強いリベラル)』(2007) 외 다수.

최상용(崔相龍) 전 주일한국대사·고려대학교 명예교수

1972년 도쿄대학에서 정치학박사 학위취득. 1982년부터 2007년까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임. 고려대 평화연구소 소장, 한국 의회발전연구회 이사, 통일부 정책평가위원,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한국정치학회장. 주일본국 특명전권대사. 도쿄대학 법학대학원 운영자문위원, 한일 우정의 해 2005 자문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통일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전공은 정치사상(민족주의, 평화사상연구, 일본정치, 중용사상연구)

저서: 『A Political Philosophy of Peace』(2000), 『중용의 정치』(2004), 『민족주의·평화·중용』(2007), 『정치와 정도전』(2007) 외 다수.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일본 게이오대학 법학부 교수

1987년 게이오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 취득.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연구생(1972.08-1974.03). 현재 게이오대학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 게이오대학 지역연구센터 소장, 한일공동연구포럼 일본측 좌장(座長), 현대한국조선학회 회장, 고이즈미 전 수상의 자문기관<대의관계 태스크포스> 위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 전공은 국제정치론, 한국·북조선의 현대정치.

저서: 『조선전쟁—미국의 개입과정(朝鮮戦争—米国の介入過程)』(1986), 『한국의 시민의식의 동태II(韓国における市民意識の動態II)』(2007) 외 다수.

정구중 (鄭求宗) 한일미래포럼 대표·동아닷컴 대표이사

게이오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수료.

1967년 동아일보에 입사. 사회 부장, 도쿄 지사장, 출판본부장 겸 출판국장, 출판편집인, 편집국 국장, 출판담당 이사 등을 거쳐 2001년 동아닷컴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출, 2007년 3월 재선임되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 및 연세언론인회 회장을 역임했다. 동아일보에 <정구종칼럼>을 집필하였으며, 현재 한일미래포럼 대표로서 한일 양국간의 사회문제에 대한 세미나 및 포럼을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다.

特別企画

今回の〈特別企画〉では、2008年10月8日〈日韓共同宣言-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10周年を迎えて高麗大学日本研究センターが主催した国際学術会議での発表内容を収録した。まず、当時〈共同宣言〉を主導した金大中元大統領と小渕恵三元首相の令嬢である小渕優子内閣部特命担当大臣(少子化対策担当/男女共同参画担当)の講演原稿2編(全文)をはじめとして、主題発表6編(概要書)をそれぞれ韓国語と日本語で掲載した。本〈特別企画〉では、〈共同宣言〉の意義と成果を再検討した両国の学界、言論界、政官界の方々の発表内容を掲載することによって、今後日韓国関係における新たなビジョンと進むべき方向性を模索することを志した。

[特別企画 執筆者 プロフィール]

金大中(大韓民国第15代大統領)

木浦商業高等学校、ロシア外交アカデミ政治学博士、高麗大学校経済学名誉博士、ケンブリッジ大学法学名誉博士、サンフランシスコ大学人文学名誉博士、他多数。

1948年、木浦日報社長、1961年、第5回民主党議員を経て、第6, 7, 8, 13, 14代国会議員、1987年、平和民主党総裁などを歴任。現在、(社)金大中平和センター理事長。2000年人権向上と南北関係進展に寄与した功勞により大韓民国初のノーベル平和賞受賞。2001年世界政治指導者賞、2003年万海賞、2003年春史映画祭功勞賞、2007年VanFleet賞(Korea Society授与)、2007年自由僮(ドイツ ベルリン自由大学授与)

著書: 『金大中獄中書信』(1984)、『大衆経済論』(1985)、『金大中の三段階統一論』(1995)、『再び、新しい出発のために』(1998)、『21世紀と韓民族』(2004)、他多数。

小渕優子(日本衆議院議員・内閣部特命担当大臣)

小渕恵三元首相の三女。

成城大学経済学部卒業。2005年、早稲田大学大学院公共経営研究科専門職学位課程修了。1996年(株)東京放送TBS入社。2000年6月衆議院議員選挙において初当選後、現在まで当選三回。2006年文部科学大臣政務官を経て、2008年9月、最年少で内閣府特命担当大臣(少子化対策担当/男女共同参画担当)に就任した。現在、文部科学委員会理事、自由民主党広報局長、日本スリランカ友好国会議員連盟事務局長、公文書館推進議員連盟懇談会事務局長などを兼任している。

船橋洋一(日本朝日新聞社主筆)

東京大学教養学部卒業。1992年、慶応義塾大学法学博士学位取得。

1968年朝日新聞に入社、北京支局員、ワシントン支局員、米国際経済研究所(IEE)客員研究員、朝日新聞経済部編集委員、アメリカ総局長、特別編集委員などを経て、2007年から朝日新聞社主筆を務めている。東京大学客員教授(2003~2004)、高麗大特別招請教授(2004~2005)。日本のジャーナリストとして外交交渉及び同盟などの懸案を理論的に分析した多数の著作がある。

著書: 『サミットの思想』(1980)、“The Peninsula Question / A Chronicle of Second Korean Nuclear

Crisis”(2007)、『冷戦後—失われた時代』(2008)、他多数。

姜尚中(日本東京大学大学院情報環境学環・学際情報学府教授)

1979年から1981年ドイツエアランゲン大学留学。

国際基督教大学教授を経て、現在、東京大学教授として在職中。専攻は政治学、政治思想史。アジア地域主義論及び日本帝国主義を対象にしたポストコロニアル理論を主要研究分野としている。テレビ、新聞、雑誌などで幅広く活躍中。

著書: 『ナショナリズム』(2001)、『日朝関係の克服—なぜ国交正常化交渉が必要なのか』(2003)、『在日』(2004)、『悩む力』(2008)、他多数。

加藤紘一(日本衆議院議員)

1959年東京大学法学部卒業。1966年ハーバード大学修士課程修了。

1964年外務省に入省後、台北大使館、ワシントン大使館、外務省アジア局中国課次席事務官を歴任。1972年総選挙で当選して政界入りした後、2005年まで衆議院議員選挙で12回の当選。衆議院議員運営委員会理事、農林水産委員会理事、自由民主党総事務局長、内閣官房長官、自由民主党幹事長などを歴任した。

著書: 『新しき日本のかたち』(2005)、『強いリベラル』(2007)、他多数

崔相龍(元駐日韓国大使・高麗大学校名誉教授)

1972年東京大学で政治学博士学位取得。1982年から2007年まで高麗大学校政治外交学科教授として在職。高麗大学校平和研究所所長、韓国議会発展研究会理事、統一部政策評価委員、外交通産部政策専門委員、高麗大学校アジア問題研究所所長、韓国政治学会長、駐日本国特命全権大使、東京大学法学大学院運営諮問委員、韓日友情の年2005諮問委員会委員長、統一部統一政策評価委員会委員長などを歴任した。専攻は政治思想(民族主義、平和思想研究、日本政治、中庸思想研究)。

著書: 『A Political Philosophy of Peace』(2000)、『中庸の政治』(2004)、『民族主義・平和・中庸』(2007)、『政治と鄭道伝』(2007)、他多数。

小此木政夫(日本慶應義塾大学法学部教授)

延世大学校政治外交学科博士課程に研究生として在籍(1972-1974)。慶應義塾大学法学博士(1987)。現在、慶應義塾大学法学部教授。その間に、慶應義塾大学地域研究センター所長・法学部長、日韓共同研究フォーラム日本側座長、現代韓国朝鮮学会会長、小泉元首相の諮問機関<対外関係タスクフォース>委員、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会日本側委員、日韓文化交流会議日本側副座長、福田元首相の<外交政策勉強会>委員などを歴任。専攻は国際政治論、韓国・北朝鮮政治論。

著書・編著: 『朝鮮戦争』(1986)、『ポスト冷戦の朝鮮半島』(1994)、『市場・国家・国際体制』(2001)、『戦後日韓関係の展開』(2005)、その他多数。

鄭求宗(韓日未来フォーラム代表・東亜ドットコム社長)

慶応義塾大学で国際政治学 博士課程修了。

1967年東亜日報に入社、社会部長、東京支社長、出版本部長及び出版局長、出版編集人、編集局局長、出版担当理事などを経て、2001年東亜ドットコム代表理事に選出、2007年3月再選任された。現在韓国オンライン新聞協会会長及び、延世言論人会会長を兼任している。東亜日報に〈鄭求宗コラム〉を連載しており、韓日未来フォーラム代表として日韓両国間の社会問題に対するセミナー、フォーラムを開催するなど活発な活動を行っている。